

EU, 한국산 폴리에스터 덤핑 조사

중국 · 타이완산 포함 조사 착수 ... EU 27개국에 원가이하 판매

EU(유럽연합)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타이완산 폴리에스터(Polyester) 원사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반독점 규제 당국인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 중국, 타이완의 섬유 수출기업들이 EU 27개국에 폴리에스터 원사를 원가 이하로 판매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9월8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리에스터 원사 수출 과정에서 덤핑 행위가 있었는지, EU 회원국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폴리에스터 원사에 대한 덤핑조사는 유럽 폴리에스터 원사 생산기업들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9>